

Track 10

재생 하다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하다] 제 10 호

기획콘텐츠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주민협의체 3팀을 만나다
[모슬포기록단, 제주동뜨락, 멘도롱도도]

노포의 재발견,
OK션[옥션] '소장의 기쁨' 전시 답사기

도시재생소식

도시재생디자인교육

제주시 원도심 지역 주민협의체 설립총회 개최

2018 주민발언회 '공감마이크 오븐' 4회,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도심 속 작은 쉼터

도시재생 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

도시재생대학 졸업생 21명 배출

월평마을학교 개교

신산머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사람중심 도시재생,
주민들이 직접 답 찾아 나섰다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주민 공모에 선정된 3팀을 만나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총 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제주시 원도심 중심이었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2018년, 서귀포시 원도심 및 제주도 읍면지역(구좌읍, 대정읍, 성산읍, 한경면)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협의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산 조사,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환경 활성화 등의 주제로 공모 됐으며 7월 17일 최종 선정 심사와 사업조정을 거쳐 총 3개의 주민제안 사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주민공모사업'은 '멘도롱도트 주민협의체'의 <행복골목 만들기 사업 - 골목 활성화 유도사업물 조성사업>, '제주동트락'의 <구좌읍 평대리 마을길, 마을의 역사 조사 및 기록 사업>, '모슬포기록단'의 <반가워 마을아 - 대정읍 기록사업>이다.

‘주민공모사업’ 선정 심사는 ‘제안 주민협의체’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모두 참여하여 진행됐으며 제안 주민협의체별 교차 평가점수와 전문가 심사위원단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했다.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사업의 실현성’, ‘자발적 주민참여’, ‘민관 파트너십’ 등 다섯가지 심사항목 기준에 맞춰 평가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심사’로 이루어졌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제안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등을 진지하게 답변했고 심사위원들은 주민들에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했다.

이번 기획콘텐츠에서는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최종 선정된 주민협의체 3팀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할 주민협의체를 모집합니다.

주민협의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발적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모임(10명이상 구성)

주민협의체의 역할

- 주민주도하에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수행
- 지역자원 발굴 및 아이디어 제시
- 주민역량강화교육 참여
- 주민공모·제안사업 수행 등

참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예정)지 내
주민, 상인,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거주 또는 생활권자

제주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2018년 기준)

제주시

동 지 역 : 건입동, 일도1동, 일도2동(신산마루), 이도1동, 삼도2동, 용당1동 일대
읍면지역 : 구좌읍, 한경면 일대

서귀포시

동 지 역 : 송산동, 정방동, 중양동, 천지동, 월평동 일대
읍면지역 : 대정읍, 성산읍 일대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18. 2. 23(금) ~ 상시모집(3. 5(월) 1차 모집 마감)
신청방법 : 센터로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regen.org)에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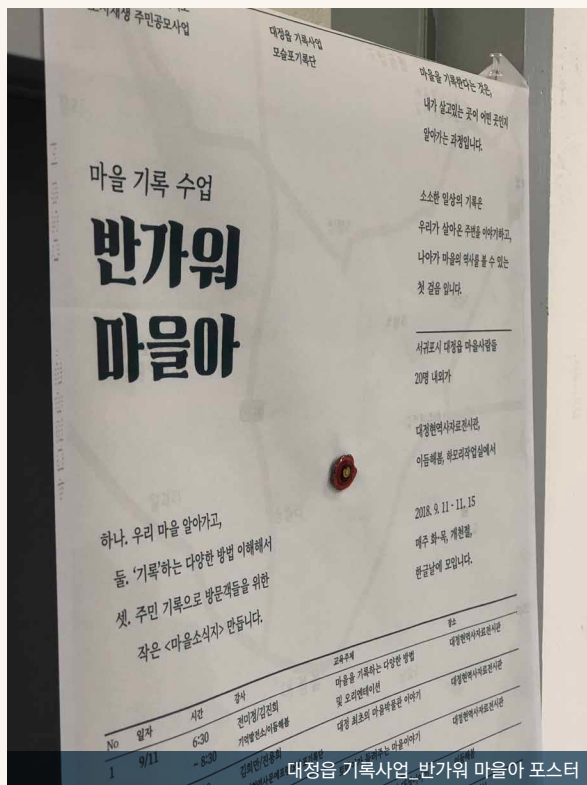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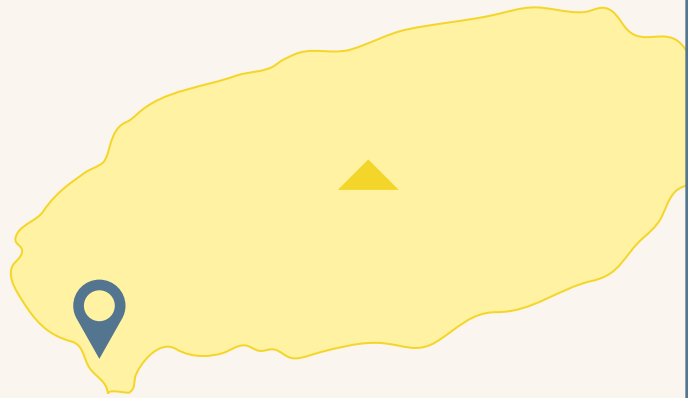
문의/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center@jejuregen.or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주민협의체 1.

사랑하는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

모슬포기록단, 〈반가워 마을아 - 대정읍 기록사업〉



Q.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슬포기록단 주민협의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진희예요. 제주에 이주한지는 9년 정도 되었고, 모슬포에서 이듬해 봄이라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모슬포 기록단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모슬포 기록단은 ‘반가워 마을아 - 대정읍 기록사업’으로 대정읍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협의체에는 마을의 아이와 부모, 청년 등 20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있어요. 소식지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컨셉이에요. 가능하다면 내년 즈음 ‘우리마을 사람 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이어갈 생각이예요. 최종적으로는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마을 소식지’를 만들고 싶어요.

Q. 모슬포 기록단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마을에서 보낸 시간만큼 애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제주가 고향인 지인과 이곳에서 재미있는 작당을 해보자고 했죠. 지인은 지금 서울에서 ‘아카이브 소셜 벤처’ 기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이 모슬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곳이 친정이라 마을 어르신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둘이 처음으로 한 일은 대정읍 마을 역사관에서 진행한 전시예요. 이곳은 원래 옛날 보건소 자리였는데, 거의 방치된 채로 있었다고 해요. 저는 2층 공간을 주로 맡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봤어요. 아이들이 직접 찍은 동네의 모습을 작품으로 전시했어요. 전시는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공간이니 만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들’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최근 들어 ‘마을 아카이빙’ 사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과거의 기록’, ‘현재를 남기는 것’, ‘마을 재생’의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그 작업에 나는 다소 의문이 들었다. 바로 “마을의 평범하고, 소소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모슬포 기록단 대표 김진희

Q. 왜 대정읍으로 이주해 오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정읍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주할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조용한 시골 마을을 원했고, 최소한의 병원, 편의시설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 이상하게 이쪽 대정, 안덕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어쩌다보니 대정읍에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듬해 봄을 열게된 이유도 ‘우리동네에 서점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서점이 생기기를 기다렸는데 생기지 않았고, 마을 할머니께서 지금의 이듬해 봄 공간을 소개해주셨어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선에서 시작했죠. 서점이지만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의 문화적 공간,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물론 한계는 있었죠. 장소나 규모의 제한도 있었구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자리를 잡아서 심야책방,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도 겸하고 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 오신다는 손님의 연락도 오구요.

Q. 대정읍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나간 역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교훈을 얻듯이, 정말 사소한 것도 기록으로 남기면 미래에 중요한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정읍은 가치있는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식지는 우리가 먼저 마을을 사랑하고, 가치를 인정해서 그 소식을 전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강사님들의 섭외도 마을 사람을 우선으로 했어요. 두분 빼고는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이에요. 인력 구인에서도 ‘육지’를 우선으로 찾는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Q.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정읍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대정읍은 일단 역사가 있는 마을이에요. 물론 현대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내는 건물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송악산이나 알뜨르 비행장만 가더라도 ‘같은 곳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정도예요. 그런 점에서 마을의 가치를 느껴요. 아픈 사건이지만 4·3과 관련해서도 역사를 간직하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앞으로도 마을의 가치있는 것들을 역사로서 남기고싶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대정현역사 자료전시관 1층

Q. 사업을 하면서 힘든 점 혹은 아쉬운 점은 없나요?

소규모의 사업이지만 집행 기간이 짧아요. 지원사업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니 변수가 생겼을 때 힘들어요. 내일도 추사기념관에서 강의하는데 비가 와서 미뤄야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규모의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진입 문턱이 높다고 느껴요. 저도 비교적 크지 않은 지원금이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기획부터 성과까지 내기에 약간 부족하다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참여 유도가 어렵더라고요. 원래 참여해달라고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어제도 전화로 참여 전화를 돌렸어요(웃음).

Q.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이듬해봄’을 하면서 작년 제주사회적경제센터에서 클낭 프로젝트를 하게되었어요. 경력단절 여성이었던 제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처럼 주부나 어머니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해요.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겼어요. 동네의 아이들도 아우를 수도 있고요. 이미 충분히 역량이 있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어서 움츠리고 계신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그들에게 발판이 되어 주었으면 해요. 그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제주도든 그 외의 지역이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해요.

Q. 모슬포 기록단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내년 상반기 소식지 테마를 ‘사람’으로 정할 거예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을 기록하고 아카이빙 하는 것이예요. 지금까지는 마을의 지리적인 요소, 역사 위주로 기록이 되어서 조금 더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싶었어요. 마을을 아무리 홍보해도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지를 더 오픈해서 많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Q. 마을 주민으로서 대정읍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지금 대정읍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주시에 가거나 마을 밖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이나 편의 시설을 찾아서요. 그들을 무조건 탓할수 없는 이유는, 그런 부족함을 저도 느끼거든요. 앞으로는 대정읍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살기좋은 마을, 더이상 이사를 나가고싶지 않은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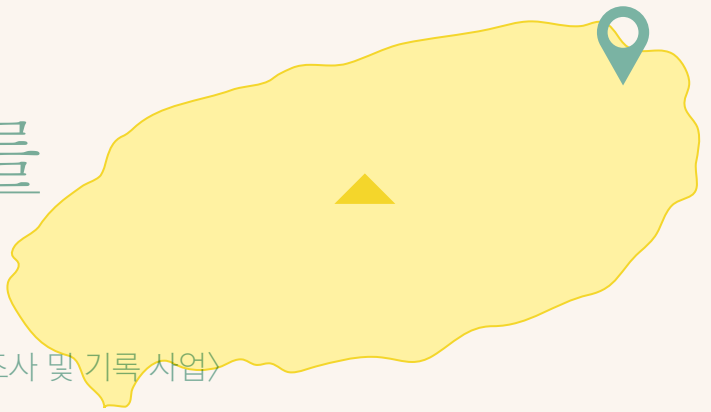
—
사랑하는 마을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중한 친구를 타인에게 소개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 마을의 사람, 공간, 이야기. 소중한 아름다운 것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소개하는 것, ‘마을 아카이빙’을 바라보는 조금은 감상적인 생각들이 남는다.

글. 김지현 | 사진. 김주미

주민협의체 2.

‘몽땅 사라질 이야기’를 담는 사람들

제주동뜨락, <구좌읍 평대리 마을길, 마을의 역사 조사 및 기록 사업>



—

한 시간 반을 달려 평대리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약간은 흐렸던 날씨, 정자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였다. 자연스레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 두 사람은 목소리, 외모, 느낌이 모두 달랐다. 우린 평대리의 전통가옥으로 자리를 옮겨 인터뷰를 시작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수(이하 김): 저는 송당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에요. 농업에 관심이 있고, 그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가치 있게 팔 수 있을지’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희형이 인터뷰 기획과 섭외를 하면, 제가 영상을 찍고 인터뷰를 채록해서 문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부석희(이하 부): 저는 유기농 작물, 그중에서도 깻잎을 주로 농사짓고 있어요. 선주민으로, 마을 근방에서 오지람이 꽤 넓은 사람으로 통하기도 해요(웃음).



평대리 주민협의체의 거점공간

Q. ‘동뜨락’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 동뜨락은 ‘동쪽 마을에 쉴 곳’이라는 뜻이에요. 마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기도 해요. 이곳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조합을 이끌어 다른 모임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협동조합이 사업체로서 성공하고, 구성원들이 이곳에서의 활동으로 경제적인 자립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김: 동뜨락에는 동네 분들이 모여있어요. 대부분 자신의 이익보다는 즐거움을 위해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 어떻게 주민협의회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부: 사업을 몇 가지 진행하면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발견했어요. 그 일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옛 지명, 재미있는 사건과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어요. 가치 있는 기억들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체를 결성하여 기록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민들의 어렵פות한 기억을 꺼내고, 검증하려 채록을 하다 보면, 마을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술병이 떠내려왔다는 기억이 있으면, 누군가는 포도주병으로 누군가는 위스키병으로, 또 누군가는 맥주병으로 기억하죠. 세부적으로 다른 기억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맞춰가요.

김: 이주민인 제가 제주도 사투리를 잘 모르니, 석희 형이 ‘사투리의 뜻’을 물어보는 장난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어떤 단어의 뜻을 물어보길래, 저도 지기 싫어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해봤죠. 그 뜻을 이야기하니, 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백과사전의 뜻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주도 사투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전을 만들었다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을 확인해보니 대다수의 제주도 사투리가 잘못된 뜻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으로 형과 함께 ‘제주도 사투리 오픈 사전’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했죠. 그 이후로 형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채록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치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주민협의회체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평대리 마을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Q. 주민 협의회체에는 어떤 구성원들과 함께하시는지?

부: 주민 협의회체 구성원은 주로 동네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서 놀 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마을 이야기를 담는 ‘채록과정’이나, 마을의 길을 만들면서 생긴 많은 다툼이나 돌발 상황에 훈련되었어요. 화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더 줄여나갈 거예요. 이런 작업에 재미와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Q. 주민협의회체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김: 석희형과 동네 투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던 중, 우연히 여행객을 만났어요. 그 여행객이 투어 중에 ‘마을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나 봐요.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치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서울에서는 쉽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때 ‘마을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 한 번은 순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괜찮다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나중에 시청의 3~4개 과에서 평대리로 답사를 왔었어요. 더 풍광이 좋은 마을은 많아요. 하지만 평대리는 마을만의 잘 정리된 ‘이야기’가 있는 곳이지요. 누군가는 “이게 큰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다 보니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Q. 주민협의체 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김: 형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제일 힘들었어요. 기존의 사전, 인터넷 정보가 형이 말해준 정보와 다를 때 ‘형의 말을 100% 문서로 옮겨도 될까?’라는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형이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허투루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믿음이 생겼죠. 인터뷰를 가면 인터뷰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아듣기에 어렵거든요. 석희형과 인터뷰 시간을 30분으로 잡았는데, 갑자기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인터뷰가 길어지고,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 지치고, 제 스케줄이 꼬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형이 되게 싫죠(웃음).

부: 주민협의체에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있어요. 가끔은 다르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인지 선주민과 이주민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선주민이다 보니 ‘나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욕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니 조금씩 이해하며 맞춰가고 있어요.

Q. 앞으로 주민 협의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가요?

부: 주민 협의체는 함께 무엇인가 해보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반 이상 정도는 만들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작은 협동조합 안에 들어와서 거점 공간도 생겼고요. 앞으로는 그 공간을 꾸미고, 그 안에 계획들을 짜나가는데 대부분 시간을 소비할 것 같아요. 내년쯤, 제대로 꾸며서 방문객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싶어요.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들도 만들어졌으면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분명 가치 있는 일이긴 한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석희형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참여해주세요’라는 부탁을 해야 겨우 참여하죠. 석희형이 하는 일을 마을 주민분들도 ‘저게 마을을 위한 일이구나.’라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석희형이 하는 일이 수월하도록 돕고 싶어요.

그들은 마을 주민의 ‘똥땅 사라질 이야기’에 관해 공감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마을에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다.

글. 오세광 | 사진. 제주동뜨락 주민협의체 제공



주민협의체 3.

‘맨도롱 또똔’하게- 골목에 온기를 불어넣다

맨도롱또똔 주민협의체,

〈행복골목 만들기 사업 - 골목 활성화 유도사인물 조성사업〉



가을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어느 날, 근 1년 만에 방문한 관덕정 인근의 골목을 지나 인터뷰 장소로 향했다. 작년에 참여한 원도심 투어 덕에 알게 된 골목 안 몇몇 매력적인 상점들이 낯익다. 반가운 마음 한편으론, 이 골목까지 닿는 발길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졌다.

행인과 골목 사이에 ‘유도간판’이라는 다리를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관덕정 맞은편의 대로변, 가을 햇살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커다란 유리창의 건물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로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Q.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맨도롱또똔 주민협의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우진호입니다. 저는 ‘이주민’, ‘공동체 조성’,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주민이기도 하고, 회사 일과 관련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고리’의 운영지원 팀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고리는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회사예요.

Q. 맨도롱또똔 주민협의체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주민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맨도롱또똔 주민협의체’까지 결성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협의체였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이 같이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Q. 단순한 주민협의체를 넘어
커뮤니티로서의 의미도 크겠네요.**

제주에 이주해오는 사람 중엔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는 정보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겪는 불편함과 심리적인 외로움으로, 그리고 누군가는 적합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로 떠나가요. 맨도롱또똔은 그런 문제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자 조직되었어요. 지금은 도시재

생주민공모사업을 포함해 단독적으로 시청 공사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어요. 만들어진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구성원 수는 14명으로, 대부분 30,40대예요.

Q.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작년부터 도시재생 대학의 문제 해결 과정,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참여하면서 ‘2017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도 진행했었죠. 작년엔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행복 부스 만들기 사업, 짐 보관 사업, 공방 사업을 했어요.

‘행복 부스 만들기’는 부스를 만들어서 게스트 하우스나 카페에 무료로 설치해 드리는 거예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나 작가, 예술가들의 제품과 홍보물을 부스에 비치하여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었어요. 카페에 방문한 손님들이 엽서나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면, 카페 주인과 작가가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였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짐 보관’은 원도심 내에 여행 온 사람들이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인근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와 연계에서 거치대를 설치해줬어요.

‘공방’사업은 네트워킹을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단순 네트워킹이 아니라 ‘가족 액세서리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공방에서 액세서리를 만들면서 참여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멘도롱또dot 주민 협의체 우진호 대표님

Q. 여러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힘드시진 않았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마무리 정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 사업을 계기로 주민협의체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협의체 안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죠.

Q.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행복 부스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관덕정의 플리마켓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매스컴이나 관광객으로서만 구경하다가, 직접 참여하게 되니 새로웠어요. 원래 목적은 플리마켓에 나온 셀러 분들에게 행복 부스를 홍보하고, 납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홍보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분들과 협의체 구성원들이 함께 했어요. 저희 구성원 중에선 굴 청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도 있었어요. 혼자 하라고 하면 두려웠을 텐데, 여럿이 함께하니 즐거웠어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지속력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어요.

Q. 이번 <2018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계신 사업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여러 사업을 통해 얻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업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바로 ‘행복 골목 만들기’사업인데요. 골목 안 작은 상점들의 유도간판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원도심 내의 골목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짓골’, ‘이앗골’, ‘두목골’ 등등...그런 골목들 덕분에 원도심 투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골목들은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 작은 골목들을 활성화하고 내부 상권을 살리는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우선 골목 안에 상점들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유도안내판’이 필요하단 생각이었죠.



멘도롱또dot 주민 협의체 회의 모습과 이웃들과의 추억으로 장식된 사무실 벽면

Q.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3개~15개 상점의 유도 간판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지원사업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뭘 하는 거지?’하고 미심쩍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목을 지나갈 때 안면을 튼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니까요. 이주민하고 선주민이 어떻게 어울리고 교류하느냐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Q. 이 공간이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커뮤니티 거점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이 공간은 사무실이지만 폐쇄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코워킹 스페이스의 성격을 띄고 있어요. 멘도롱또dot 주민 협의체 모임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당장 개인 사무실을 구하기 힘든 초기 창업자들이 이 곳에서 업무를 보고,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관계이자, 목적성 있는 활동을 하는 곳에 공간을 제공해요. 동네 사랑방처럼 이곳을 중심으로 나눔이 일어나기도 해요. 누군가 오고 가면서 빵이나 캔맥주, 마스크 팩을 기증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죠.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주민협의체의 방향과 포부는 무엇인가요?

주민협의체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생각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역 사회 내에 그

들에게 도움을 주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국가의 지원이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주해오신 분들이 지역에 잘 적응하고,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
제주에는 해마다 많은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이주해오는 곳이다.

그 동기와 결단의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인생 2막’ 혹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일 것이다.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이, 새로운 활기가 필요한 도시의 바람과 닮아 보이는 건 왜일까?

씨앗을 품은 개인이 안정적인 일터를 만나 지역에 뿌리내리고, 서로 지탱해주는 이웃을 만나 튼튼한 줄기를 세운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긴 가지를 뺏어 결실을 맺어나갈 때, 개인과 공동체, 지역은 함께 성장해 나간다. 나의 삶 터를 사랑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도시의 활기가 되고, 온기를 나눌 때, 도시는 더 없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리라 믿는다.

글, 일러스트, 신지우

길목을 지키고 있던 노포와 자유로움을 사랑하는 작가들의 만남-

2018 HAO : OK선[옥션] '소장의 기쁨' 전시 답사

〈 전시개요 〉

- 기간: 2018. 9. 6(목) ~ 9. 9(일) (4일간)
- 장소: (구)자양삼계탕 (제주시 관덕로6길 17)
- 프로그램:

아티스트 오픈스튜디오 & 아트투어버스

: 제주 전역 곳곳의 제주 작가 18인의 작업 공간을 기획자의 해설을 들으며 직접 투어하고 작품을 프리배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OK선[옥션] 전시

: (구)자양삼계탕에서 작품 프리뷰(9/7~8) → 옥션(9/9)의 순서로 작가 32인의 작품 전시와 입찰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작가의 도구展'과 '미디어 상영회' 진행.

저작권 워크숍, 〈HAO X 아트로, 예술가를 위한 법률 강의〉

: 법률사무소 '아트로'의 김유나 대표 변호사가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진행

익스퀴짓 콕스(Exquisite Corpse)

: 행사장의 방문객과 작가가 함께하는 릴레이 그림 그리기를 전시장 한편에서 진행

도내외 참여작가와 예술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아티스트 네트워킹 시간

주최: HAO | 주관: 하오제주, 하오순천, 하오서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

* 'HAO'는 '해방촌 아티스트 오픈 스튜디오' (Haebangchon Artist Open studio)의 약자로, 2015년도 해방촌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가만,
‘자양 삼계탕’에서 한다고?”

(구)자양삼계탕은 지난 40년 동안 뜨끈한 삼계탕 하나로 묵묵히 자리 잡고 있던 원도심 한 골목의 노포였다. 최근 가게를 닫아 비어있는 이 공간에서, 일반인에게 익숙지도 않은 '경매'방식의 전시회라니.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전시장을 찾았다.

보색대비의 형상이 인상적이었던 홍보 포스터와 배너들이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반겨주었다. 들어서니 오른쪽에는 여느 토속 식당에서 봤을법한 정겨운 내부 조경과 오래된 가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구)자양삼계탕의 기존 조경과 전시장 관람로 입구 모습

D-day, 다채로운 전시 관람 현장

나무 파티션으로 이뤄진 내부의 전시 관람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보았다. 들어서면 입구에는 'OK선[옥션]'의 취지와 경매입찰의 방법 등이 친절하고 위트있게 설명되어 있었다. 미로같이 구성된 관람로에 무려 작가 32인의 작품이 제각기 특색을 빛내며 걸려있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요소는, 입찰자들의 오묘한(?) 심리 싸움이었다. 같은 작품에 입찰자들이 둘 이상일 때, 금액을 서로 번갈아 써 내려가는, 소리 없는 '경매 전쟁 현장'을 엿볼 수 있기도 했다. 나도 작품을 산 적은 있지만, 경매는 진입 장벽이 왠지 높게만 느껴지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신기했다. 그것도 삼계탕 집에서.

전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방에 '작가의 도구展'까지 둘러보고나니, '이 전시가 어떻게 기획되었고, 누가 만들었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전시 부디렉터이자, 해방촌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작가 윤순영 님. 전시 공간 기획 및 제작을 맡은 제주 토박이 예술가 고경훈(Zudo) 님. 이번이 처음 함께한 작업이지만, 운명처럼 합이 '찰떡'이었다는 제주팀 기획자 이다혜 님. 이렇게 세 분과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디렉터가 뉴욕에서 수학할 당시 경험했던 마을 단위의 공공미술 ‘덤보 아티스트 오픈스튜디오’와 ‘부쉬윅 아티스트 오픈스튜디오’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어요. 작가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제주에서도 그 장을 만들어볼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함으로써 채웠다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따뜻하고 단단한 팀워크가 느껴졌다. 이런 시작의 기회에서 장소 섭외는 정말 중요한 이슈였다. 제주도 방방곡곡 일일이 찾아다니던 중, 우연한 기회로 (구)자양삼계탕 공간을 보자마자 ‘여기다!’ 싶었다고 한다. 교통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내공에 끌림이 있었고, 전시에 적절한 규모이기도 했다.



(구)자양삼계탕에서 인터뷰 진행 중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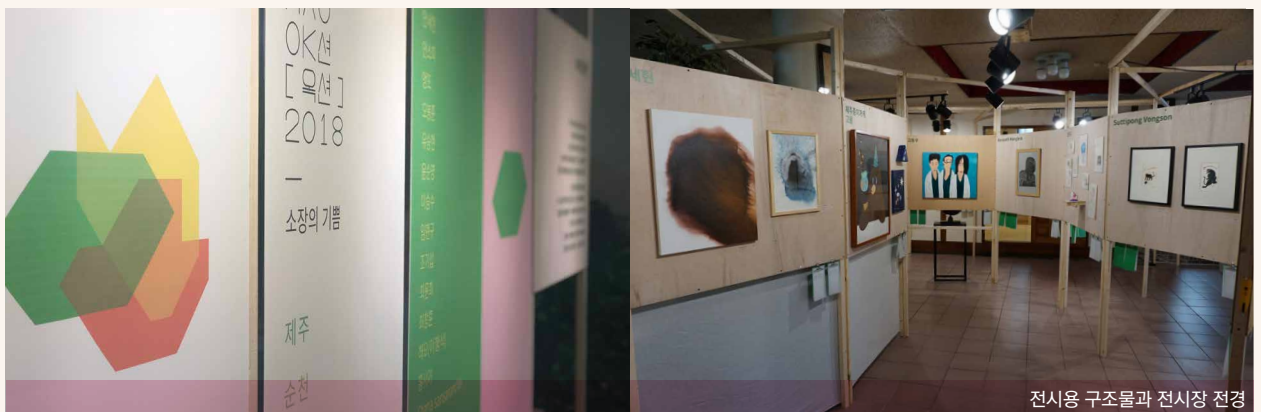
향토성과 예술성, 그 사이의 온기

예술과 문화에 꾸준히 관심이 있던, (구)자양삼계탕의 사장님은 흔쾌히 젊은 작가에게 공간을 내어주셨다. 하지만 기나긴 세월의 애정이 담긴만큼, 원래의 모습과 전시가 잘 어우러지도록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공간기획자 고경훈 님은, “보통은 구조물이 안정감을 받기 위해 천장과 바닥을 맞닿아 지지를 받는데, 기획단계에서 천장에 지지대가 달게 되면 혹시나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염려되었어요. 고민 끝에 바닥, 벽, 천장 어디에도 고정작업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 지금의 통로를 제작하게 되었죠.” 라고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아트투어버스로 작가의 작업실을 함께 찾아가보는 ‘아티스트 오픈스튜디오’를 주변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등, 과정 곳곳 배려가 녹아든 섬세함이 느껴졌다.

비워져 있던 유휴공간은 전시를 통해 근사한 ‘예술 행사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예술가들은 동네 안에서 주민들과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관람객은 ‘식당에서의 미술품 전시’라는 특별한 조합으로 시각적 즐거움까지 얻었다. 앞으로도 원도심 곳곳이 문화예술의 숨결로 더 풍성해지고, 나아가 ‘옛것’과 ‘요즘 것’의 배려 넘치는 소통이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 잡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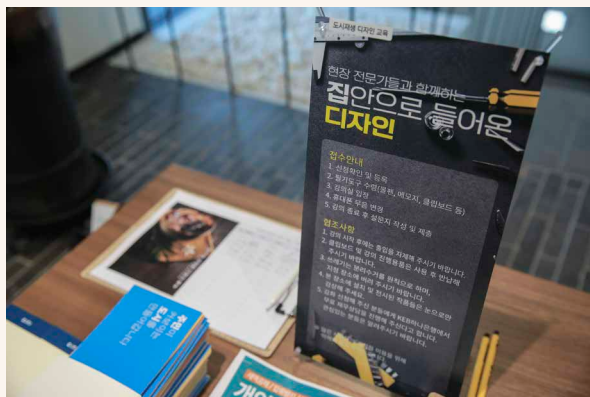
글. 김주미 | 사진. 박란희, 차상훈



전시용 구조물과 전시장 전경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집안으로 들어온 디자인 교육

도시재생 디자인 교육



도시재생은 넓고, 크지 않습니다. ‘도시의 기능 공간’을 ‘인간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전환해 주변의 일상을 따뜻하게 바꾸어 주는 **작은 친절**한 힘이 도시재생에 필요합니다. **디자인**은 이런 도시재생의 프레임과 디테일을 접합시켜줄 수 있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이번 “**도시재생 디자인 교육**”을 통해 **현직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내 집과 내 주변의 생활환경을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주변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은 **내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이 되길 기대하며 11월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모집개요

- 교육과정: 도시재생 디자인 교육
- 교육목표: 디자인 교육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교육기간: 2018년 8월 24일(금) ~ 11월 9일(금)
- 인 원: 강의별 오전 30명/오후 30명 선착순 모집
- 교육비: 무료
- 교육장소: KEB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3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8)

교육시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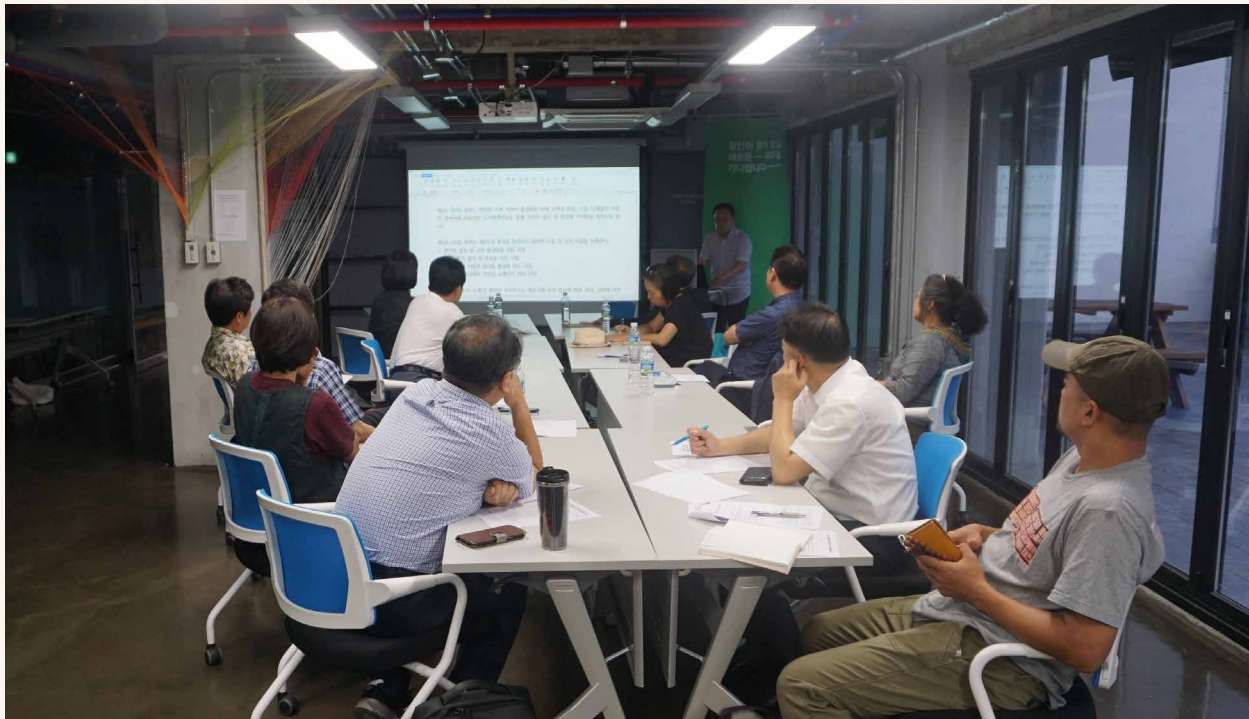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10:00~12:00 / 19:00~21:00

01강	10/02	우리 동네 디자인 이야기 : 노후주거지 도시재생 박학용 대표 - ㈜동네목수 ※ 8월24일 태풍으로 휴강 후 보강 진행
02강	08/31	내 집도 소문난 카페처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지준호 대표 - 커피파인더
03강	09/07	미운 우리 디자인: 디자인이 왜 중요하죠? 이용규 교수-제주대학교 건축학과
04강	09/14	자투리 돈을 모아하는 리모델링 손권석 팀장 - 하나은행 인터네셔널 PB센터
05강	09/21	이것만 알면 나도 전문가! 셀프페인팅! 원주연 실장 - 던 에드워드 페인트
06강	09/28	사례로 보는 리모델링 주요점 이유정 건축사 - COA건축사사무소
07강	10/05	복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고봉선 대표 - 명문디자인
08강	10/12	건축재료 처방전 감(GARM)으로 ‘감잡다’ 심영규 대표 - 프로젝트데이
09강	10/19	같은 공간 다른 느낌, 주거공간 조명디자인 - 원슬기 조명 디자이너
10강	10/26	우리집의 인테리어 포인트, 가구디자인 이양선 대표 - 슬로리
11강	11/02	호텔 부럽지 않은 화사한 포인트! 플라워 인테리어 이세희 대표 - 어라운드 플라워
12강	11/09	내가 꿈꾼 우리집은 어떤 모습일까? 손종남 건축사 - Office틀



주민 주도 관덕정 주변 활성화 사업 본격화

‘관덕정 주변 원도심 지역 주민협의체’ 설립총회 개최



9월 5일 오후 6시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실에서 ‘관덕정 주변 원도심 지역 주민 협의체’ 설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설립 총회는 주민협의체 정관 심의, 임원 선출 및 운영 계획 심의를 위해 회의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전3차례의 사전모임을 통한 의견공유로 큰 이견 없이 상정된 안건이 만장일치로 모두 의결 되었다.

본 주민협의체는 관덕정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주민, 기관, 단체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표1명, 자문위원1명, 운영위원 5명, 감사1명, 간사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관덕정 주변 원도심 지역 주민 협의체’ 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되어 설립된 주민 협의체로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관덕정 주변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주민

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신임대표로 선출된 고봉수 대표는 관덕정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인사말을 통해 다짐하였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물론 토지·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대상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자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단체를 구성하면 신청 가능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기획 및 수행 ▲지역자원 발굴 및 아이디어 제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주민공모 및 제안사업 수행 등이 있다.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지속적 인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발굴 하고 현안을 논의한 후 센터와 행정 등과 협의하여 도시 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으로 조성되어야”

2018 주민발언회 “공감마이크 오븐” 4회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도심 속 작은 쉼터



지난 8월 2일 제주시 원도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활동가 등 10여명의 참여 속에 2018년 네 번째 공감마이크 오븐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오븐3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여 검토 받은 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한 형태의 쉼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행정의 검토 의견에 대해 주민들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역주민(소극장운영) : 놀이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사업부지 같은 경우엔 조금만 다듬어 주면 현재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 히 있다고 생각해요. 삼도2동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요? 마을 주민 모두가 정성껏 아이들을 같이 키워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공간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참여형 가로쉼터 조성 사업이란?

제주시 원도심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유휴공간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심 속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설설치 보다는 공간의 목적성 고민해야”

지역주민 : 요즘 아이들은 주어진 문제에 답을 내는 능력들은 뛰어난데,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빈 곳을 채우는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고 생각해 낼 수 있게끔, 돌맹이도 넣어주고 모래도 넣어줘서 블록 쌓기가 아닌 자연을 쌓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쉼터이자 놀이터 공간으로의 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내야”

지역주민(학부모)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놀이터를 듣고 생각했는데, 선진국인 독일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자연놀이터를 추구하고 있어요. 암벽이나 암반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이끌어주고 어른들도 재미있어해요. 그런 방식의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면 그 곳이 명소화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조성 후 우범지대화가 되는 걸 막아야”

지역주민 : 저희가 가장 우려 하는 건 우범지대화입니다. 우범지대가 되지 않게 놀이터든 쉼터든 텃밭이든 주변에 충분한 CCTV가 있어야 해요. 또한 그곳에는 조명도 어둡습니다. 조명시설 또한 확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 사실 이 공간을 제일 많이 쓸게 저희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젊은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모았던 의견은 놀이터였습니다. 놀 공간을 만들어 주자였습니다. 위치가 가까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의 사용률이 높을 것이고, 자연스레 주민 스스로 관리의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말씀하신 안전문제나 우범화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감마이크 오븐을 통해 다수의 주민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오븐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어떤 형태로 쉼터(어린이 놀이 공간)를 조성할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을 주축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의 일상’을 재발견하다

‘제3기 제주시·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성황리에 종료

지난 9월 20일,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2018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도시재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도시재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양강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에 ‘제3기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39명, ‘제3기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날로 뜨거워지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반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상반기에 제주시가 ‘주거 재생’, 서귀포시가 ‘시가지 재생’을 주제로 진행된 것과는 반대로 제주시에서 ‘시가지 재생’, 서귀포시에서 ‘주거 재생’을 주제로 강연함으로써 2018년 상하반기 전체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도시재생 전반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하반기 교육부터는 강사진이 대폭 강화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인 ‘골목길 자본론’의 모종린 교수(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가 강연자로 나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골목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는 ‘도시의 발견’의 저자인 정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가 도시를 바꾸는 시민의 역할을 강연하였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지역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많은 사례와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며, 향후 진행될 교육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강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재생에 관한 도민 이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제3기 제주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강의구성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 사
1강	2018.08.28.(화)	19:00~21:00	도시재생 뉴딜, 구도심의 변화	이상준 박사 [LH 토지주택연구원]
2강	2018.09.04.(화)	19:00~21:00	라이프스타일과 도시의 미래	모종린 교수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3강	2018.09.11.(화)	19:00~21:00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이야기	김희진 센터장 [또따또가운영지원센터]
4강	2018.09.18.(화)	19:00~21:00	도시를 다시 살리는 스타트업	양경준 대표 [(주)크립톤]

▶ 제3기 서귀포시 도시재생 아카데미 강의구성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 사
1강	2018.08.30.(목)	19:00~21:00	도시재생 뉴딜, 우리동네의 변화	안상욱 이사장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2강	2018.09.06.(목)	19:00~21:00	모두에게 좋은 삶의 터의 조건	고은설 대표 [예술기획연구소 별의별]
3강	2018.09.13.(목)	19:00~21:00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경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김종현 대표 [(유)섬이다]
4강	2018.09.20.(목)	19:00~21:00	도시재생을 넘어 도시혁신으로	정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주민의 의견이 계획이 됩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졸업생 21명 배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주도의 사업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완료하였다. 금년도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원도심과 대정읍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이에 총 12주간의 교육을 거쳐 서귀포시 원도심 8명, 서귀포시 대정읍 13명, 총 2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도시재생대학이란?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고민, 실제 사업까지 구상해 보는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공통 이론과정 4주와 문제해결과정 8주, 총 12주로 구성된다. 먼저 공통이론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도시재생의 역사와 이해’, ‘도시재생 관련 지원 정책’, ‘도시재생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된다. 문제해결과정은 공통이론과정에서 습득한 이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스튜디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금년도는 서귀포시 원도심 2팀, 대정읍 3팀이 구성되어, 팀별 매주 1회, 총 8주간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8월 12일에는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최종발표회 및 졸업식이 진행되어 각 팀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귀포시 원도심의 경우 제주도 남부의 경제중심지인만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역경제활성화1,2’로 구성된 각 팀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 양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1팀의 경우 ‘할망&하르방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체류형 관광객 증대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 2팀은 ‘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 내 유희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8월 13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대학’의 최종 발표회가 있었다. 대정읍은 조선 초기, 제주도의 서쪽 지역을 다스리던 대정현이 위치하였고 근대 이후 모슬포항을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왕성하던 곳으로 지역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주거환경 개선,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팀은 ‘역사문화활성화팀’, ‘주거환경개선팀’, ‘지역상권활성화팀’ 총 3개로 구성되었다. ‘역사문화활성화팀’은 대정읍의 역사문화자원을 엮은 ‘평화길 따라, 유배길 따라’라는 탐방코스를 주제로 대정읍의 전통문화는 물론이고 태평양전쟁 및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새겼다. ‘주거환경개선팀’의 경우 ‘돌담 따라, 꽃길 따라’라는 주제로 지역의 전통적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 어촌계의 유류노동력을 활용하겠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활성화팀’은 토요장터&추억의 통조림 테마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에 오랫동안 방치 되어 있던 (구)통조림공장을 활용한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지난 9월 13일~14일, 교육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선진지 답사의 기회도 함께 주어졌다. 이번 선진지 답사에는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수료생 7명이 참가하여 서울시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째 날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은평구 산새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텃밭과 도시자연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시재생 엑스포’ 방문은 짧은 시간에 변화하는 도시 환경을 이해하고 타 지역의 앞선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둘째 날은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례로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를 둘러보았다. 이날은 문화비축기지 이광준 기지장을 통해 직접 문화비축기지의 조성 과정과 도시재생의 의의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일제 강점기의 아픈 기억을 역사탐방로로 조성한 ‘남산 기억로’를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대정읍이 갖고 있는 근현대의 아픈 기억을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나가야 할지 배웠다.

도시재생대학이 끝을 맺고 8월 31일, 졸업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정읍(상·하모리)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 근린형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이번에 당선된 공모계획에는 졸업생들이 제안한 (구)통조림 공장 복합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민의 의견이 계획이 되었다.”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성과물〉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전체 수업 모습

서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대학 공통이론과정 수업 모습

구 분	지역경제활성화 1팀	지역경제활성화 2팀
지도교수	송창윤 이사장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시간(h)	24h (공통이론과정 8h, 문제해결과정 16h)	
사업명	할망&하르방 게스트하우스	유희공간 활용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내 용	지역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할망&하르방 게스트 하우스 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유희공간을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 문화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성과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문제해결과정 수업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대학 최종발표회 모습

구 분	역사문화활성화팀	주거환경개선팀	지역상권활성화팀
지도교수	허지호 실장 (전, 사단법인 제주올레)	윤흥기 관장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이진하 (전,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교육시간(h)	24h (공통이론과정 8h, 문제해결과정 16h)		
사업명	대정읍 역사탐방로 개설 : 유배길 따라, 평화길 따라	대정골 돌담 따라, 꽃길 따라	토요장터 & 추억의 통조림 테마길 조성사업
내 용	대정읍의 역사문화 탐방로를 소재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정읍 역사문화자원 홍보 및 방문객 증대	지역 어촌계 유희 노동력을 활용한 제주 전통 돌담 복원 및 꽃길조성	지역의 역사가 담긴 유희공간을 거점으로 한 특색 있는 상권 공간 창출

‘혼디 손심영!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월평마을학교 개교

월평마을학교는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리골드와 연잎을 이용한 꽃차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을 포구에 자생하는 야생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꽃차 만들기도 준비 중이다. 앞으로 현장지원센터는 꽃차 만들기 이외에도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 일 시 2018. 08. 16. ~ 08. 30.
19:30~21:30

▶ 장 소 서귀포시 월평마을 다목적회관

▶ 참석인원 19명

▶ 교육내용 매리골드 / 연잎 꽃차 만들기



월평마을 주민이 도시재생 선진지에 간 까닭은?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금번 선진지 견학과 현장 워크숍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을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일 시 2018. 09. 12. ~ 09. 14.
(2박 3일)

▶ 참석인원 27명

▶ 견학장소 서울시 성미산마을, 상도4동,
창신·송인동, 해방촌



‘곶돌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며, 다양한 참여를 통해 신산머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한다.

▶ 프로그램 운영기간 2018년 08월 ~ 11월

▶ 운영 강좌 스카프 만들기, 천연염색 기초, 코어 요가, 꽃차 만들기, 사진작가, 마을협동조합 만들기



스카프 만들기



코어 요가



나도 사진 작가다



천연 염색

고희범 제주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산머루 방문

2018년 9월 7일 고희범 제주시장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인 신산머루에 방문했다. 제주시장은 이날 사업지역 답사 및 관계자·주민협의체와의 담소를 나눴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Track 10

재생 하다

발 행 일 2018년 10월 24일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발 행 인 이재근

기획·디자인 어떤생각이든연구소

인 쇄 일신옵셋인쇄사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 페이지 www.jejuregen.org